

북한관광산업의 현재와 전망

주영환
강릉원주대학교

<요약문>

남북한이 분단된 지 73년이 지난 2018년은 한반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해로 남북 간의 경제,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관광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즈음하여 북한의 관광발전 정책, 북한의 관광시장, 북한 관광의 주요 거점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북한 관광산업의 미래와 향후 통일 한국 관광시대를 조망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 북한관광산업의 발전과 훗날 통일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담당해야 할 남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주제어: 남북교류, 북한관광산업, 남북관광, 국가관광총국, 국제관광특별지대

I. 서 론

북한 관광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3년이 지난 1956년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체제 홍보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19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친선유지 차원에서 소규모 휴양관광단을 유치하고 해외교포를 대상으로한 ‘조국방문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관광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도 기본적으로 주민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북한 여행을 자본주의의 타락한 형태로 백안시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1980년대 들어 경제난이 심해지자 외화 수입 증대 수단으로 대외 관광 사업에 관심을 두고(Connell, 2017) 유엔관광기구(UNWTO) 가입,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금강산 및 개성 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련 시설 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였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관광부문에서 합영, 합작 사업과 외국인 관광 유치를 장려하였다.

1990년대 들어 나진-선봉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화획득에 주력하였다. 1995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에 가입하고 1996년에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관한 관광규정을 제정하였다(신용석, 2005; 신용석, 2011; 한국관광공사, 2001). 2002년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으며, 2003년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고 9월부터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양관광도 추진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백두산관광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12월부터는 개성관광을 개시하였다. 2009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함흥 마전유원지 마전호텔을 준공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국과 체결(2009년 10월)한 ‘중국인 북한 단체관광에 관한 양해각서’가 본격 시행되어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이 확대되었다(박근수, 2018; 신용석, 2012). 최근 들어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남북 관계의 경색, 방북 미국인 대학생 워비어(Warmbier) 사망 사건 등으로 북한의 관광산업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위험하고, 비밀스럽고, 독특한, 보통이 아닌 관광목적지로 여겨지고 있다(Buda & Shim, 2015; Connell, 2017; Wassler & Schuckert, 2017). 한편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해 연구되어 왔는데 주요 주제로는 관광정책 혹은 정치적 이념과의 관련성(Hall, 1990; Kim & Crompton, 1990; Kim & Prideaux, 2007), 한반도 평화 진작 수단으로서의 관광(Cho, 2007; Kim & Prideaux, 2007, Lee, Bendle, Yoon, & Kim, 2012), 북한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경험(Li & Ryan, 2015, 2018) 등이 있다.

남북한이 분단된 지 73년이 지난 2018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 회담이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열렸고,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등 종전협정 이후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어져오던 정황이 180도 변화된 의미 있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으나 시기의 문제일 뿐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에 따른 영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경제 분야,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고조되어 가고 있으나 ‘미지의 나라’ 북한과 핵 협상과 동시에 평화 협력과 개발 협력 프로세스를 밟아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틀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남북 간 문화 분야 교류를 남북이 힘 모아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북한 문화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박근수, 2018; 천경효, 2018).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북한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여 향후 남

북한 관광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관광발전 정책, 북한의 관광시장, 북한 관광의 주요 거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펼쳐지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 관광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II. 북한 관광산업의 현재

1. 북한 관광 발전 정책

북한은 관광을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의 발전면모, 역사 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관광을 사람들의 사상·문화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봉사사업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 관광은 1986년 5월 15일에 창립되어 '나라의 관광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 관광관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관광총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가관광총국'은 정부급 관광관리기구로서 북한의 관광사업 전반을 정책적으로 지도관리하며 관광계획, 관광 조사 및 개발, 관광 선전 및 시장촉진, 관광재정관리, 관광봉사조직 등과 같은 사업을 장악하여 지도통제한다. 산하에 평양여행안내소, 조선관광안내사, 관광선전통보사, 관광여행객자동차사업소, 외국인관광봉사소, 칠성합영회사 등을 두고 있다. 국가관광총국 산하의 국가급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KITC: Korea International Travel Company)는 주로 해외에서의 북한 관광지 홍보, 관광 프로그램 개발, 해외 여행기관과의 관광·교류 계약체결, 외국인관광객 안내 등 국가관광에 관한 전반적인 임무를 다루고 있다(김한규, 2016; 임을출 외, 2017). 북한은 1987년 9월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정식 가입하였다(평화문제연구소, 2008).

현재 외부세계의 문물을 통한 주민들의 사상적 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개인 차원의 자유로운 여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출장, 친인척 관혼상제, 방학, 제대, 단체답사, 단체견학 등을 이유로 한 여행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관광을 북한주민의 사상, 문화, 정서적 요구를 지원하는

<표 1> 북한 관광에 있어 국적별 관광목적과 관광대상

	외국인	내국인
목적	관광(구경, 공연관람)	답사 · 견학
관광지 및 관광대상	자연명승지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백두산 등) · 건축물(주체사상탑, 개선문, 서해갑문 등)과 문예작품	도시, 기념비, 명승지(백두산, 왕재산 등 전적지), 고적유물, 문화유산 등

* 출처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정치사상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 의한 국내관광수입은 전체관광수입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국내관광산업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인바운드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한규, 2016).

북한 당국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해 경제개발에 주력하기로 한 것과 때를 같이 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외국인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이용규, 2016; <http://www.yonhapnews.co.kr>). 박근수(2015)는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①핵무기개발로 인하여 계속된 대북제재 속에서도 외화획득의 용이성, ②북한에 부여된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며 또한 관광산업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 않는 산업, ③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사 부합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특히 수차례 핵 실험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관련하여 관광을 위한 자금이나 물자 지원은 제재대상이지만 순수한 관광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관광산업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북한 당국의 관광산업 활성화 의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근수, 2018; 천경효, 2018).

첫째,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가운데 관광을 테마로 한 개발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북한 당국은 ‘경제강성국가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26개 특구와 개발구를 지정하였다. 이 중 관광을 테마로 한 대표적인 곳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별지대이다. 국제관광특별지대는 다수의 관광특별지구를 연결해놓은 벨트형 개발지역으로써 2016년 개통한 갈마비행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해 석왕사, 금강산, 명사십리 등 문화유산, 스포츠, 자연자원이 풍부한 복합적인 관광벨트이다. 향후 남북 관광이 재개되면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해안 축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게 되므로 연결성, 확장성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개발구는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나 수차례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최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외국자본유입 없이 자체 건설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원산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별지대의 거점도시로서 북한 관광의 새로운 거점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 스키선수들이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할 때 양양~원산 항로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와 관련한 외신기자 초청 시 베이징 ~ 원산 항로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하면서 원산을 국제사회에 노출시킨 사례는 북한 당국이 원산을 국제관광지로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측면이라 하겠다.

둘째, 평양관광대학 등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2월 평양 외국어대학 내에 동시통역연구소를 신설하여 8개 외국어(영어, 일어, 불어, 독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통역 안내원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관광총국 산하에 ‘국제관광안내통역학교’를 신설하여 1년에 4개 어권별(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각 15명씩을 배출하여 왔다. 그 후 북한은 세계관광기구(WTO) 가입 후 WTO의 권고에 따라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상업대학, 청진산업대학 등 평양의 몇몇 대학에 추가로 관광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에 관광경제학과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관광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신용석, 2005). 현재는 지방의 사범대학들도 관련 학과를 설치해 지역 차원의 인력 공급에 대비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자연 관광이나 문화유산 관광 외에도 새로운 주제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에 따라 국가관광총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패키지관광상품[예: 집단체조 관람 상품(2013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관광상품(2012년), 주체사상을 배우는 관광상품(2011년), 에어쇼관람상품(2016년) 등] 개

발에 주력하여 왔다.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선관광’은 676개의 자연명소, 142개 역사유적, 9개의 자연호수, 4개의 광천자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평양이나 묘향산, 백두산, 함흥, 원산, 금강산 등 전통적인 패키지관광상품 이외에 비행기 애호가관광상품, 마라톤관광상품, 골프투어상품, 태권도관광상품, 익스트림투어상품, 하이킹투어상품, 캠핑투어상품, 역사관광상품, 싸이클링투어상품, 백두산·칠보산관광상품, 산업문화관광상품, 북한의 일반 가정을 방문하는 홈스테이 문화관광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테마별 주요 관광상품은 단기적으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인력을 발휘하고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인기가 높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임을출 외, 2017). 첫째, 당국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정책으로 가격이 높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을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테마여행 상품의 여행기간은 다양하나 대략적인 관광비용은 중국 베이징까지 오가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13박14일에 4,000달러(약 434만원), 9박10일에 3,000달러(약 326만원), 5박6일에 2,300달러(약 250만원)로 한국 관광상품 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다(박근수, 2015). ‘빛나는 조국’ 관련 패키지 투어의 1인당 참가비용은 103만원, 헬기 등을 이용한

<표 2> 외국인 관광객 대상 패키지 상품 사례

패키지명	내용	비고
마라톤상품	· 마식령스키장에서 2박3일, 3박4일, 6박7일 등 일정 소화 · 풀코스(42.195km), 하프코스(21.0975km), 10km코스, 5km 코스	
산악자전거 관광코스	· 중국 지린성 훈춘시~북한 함경북도 라선시 · 1박2일 동안 두만강변 80km 일주	
기차여행코스	· 평양-묘향산-동해안-동북부 해안-청진	
평양냉면먹기	· 3박 4일 · 옥류관, 청류관 등 현지 가이드가 추천하는 냉면가게 탐방 코스	
축구에호가 상품	· 4박 5일 · 김일성경기장과 서산축구경기장에서 북한 내 강팀의 하나인 헛불팀과 친선 경기	

40분간의 평양 저고도 비행 프로그램의 경우 Mi-17은 195유로, 자이로콥은 90유로, 북한 전역 일주 프로그램인 An-24(또는 IL-18)는 495유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관광객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여전히 주로 북한에서 홍보하고 싶은 곳 위주로 투어를 진행하며 체류 중에는 항상 현지 가이드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개별 행동이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관광객의 출입에 여전히 제한이 많다는 점이다. 셋째, 평양을 벗어난 지역의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질적 수준도 낮다는 점이다. 넷째, 예상치 못한 국내외 사정으로 패키지 관광상품이 불시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패키지 관광상품의 안정성이 약하다는 점 등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인 테마 관광상품이 가진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관광총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북한의 관광산업은 매년 평균 20% 이상 급성장 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박근수, 2015), 2017년까지 100만 명, 2020년까지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https://news.kotra.or.kr>; Winsor, 2015).

최근에는 내국민에 의한 관광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2017년 2월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인민들이 이 나라의 명승지들과 역사 문화유적들, 명소들에 대한 참관과 유람관광을 통하여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였다"(www.yonhannews.co.kr)라고 홍보하면서 북한 주민을 경제회생의 주제로서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여행상품의 출시 및 전반적 관광서비스 개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산업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또한 북한 당국은 최근에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면서 평양냉면과 판문점, 백두산 등 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경향신문, 2018.11.7.). 즉, 북한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의 일본 대리점 'JS투어스'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했던 장소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중국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 여행사는 판문점 소재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태국에서 열린 관광박람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실물 크기를 담은 간판을 세워 놓고 북한 관광을 홍보하였다.



* 출처 : 중앙일보 2018.10.20.

<그림 1> 북한의 태국 관광박람회 홍보 활동

2. 북한의 관광시장

북한의 관광산업을 견인하는데 있어서 남한 국민들에 의한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 당국은 중국여행객 유치를 시작으로 전 세계 여행사와 연결하여 외국인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여 외화획득을 도모하여 왔다(임을출 등 2017; Connell, 2017). 현재 북한은 162개국과 국교를 맺고 있으나 실제 방문은 중국과 유럽으로부터의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은 평양으로 직접 입국하며 대부분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da & Shim, 2015; Reily, 2014).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95%(비공식 통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 방문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96,100명, 2010년 131,100명, 2011년 193,900명, 2012년 237,400명(2013년 이후 미발표)으로 매년 증가하여 왔다. 2013년에는 중국인이 20만7000명, 서구세계가 6,134명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2015년에 중국인이 10만 명, 서구세계가 4,934명, 2016년에도 유사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7년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방북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앙시사매거진, 2018.11.8.). 증가하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일환으로 중단되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이후 랴오닝(遼寧)성 내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 한반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동북3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방북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매월 1,000~2,000명 정도가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8.7.). 이와 같은 성과는 북한에 대한 향수가 있는 50세 이상 중·노년층의 수요에 부합되는 홍보 및 상품개발에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이데일리, 2018. 10. 17.). 중국과 북한과의 항공 노선 재개(예: 2018년 5월31일 북한 고려항공 평양~상하이 노선 재개, 2018년 6월6일 중국 국제항공 베이징 ~평양 노선재개) 또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고려항공이 중단 된지 12년 만에 평양 ~ 다롄 간 전세기를 정식 운항하면서 베이징, 선양, 상하이, 청두, 시안, 다롄까지 노선을 넓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쇼핑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줄 선물로 한약재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 & Ryan, 2018).

3. 북한의 주요 관광거점

1) 평양

북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평양은 북한의 관문으로 다른 도시와는 달리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평양의 대표 관광지로는 금수산 기념 궁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주체사상 탑, 만수대 기념관, 김일성 광장, 만경대 김일성 생가 등이 있으며 광복백화점, 락원백화점, 평양아동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 등도 자리하고 있다. 평양냉면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옥류관부터 모란, 락원, 대극장식당, 별무리차집 등의 음식점 및 카페도 마련되어 있다. 옥류관은 대동강변 옥류교에서 따온 2층 구조로 김일성의 지시로 1961년 8월 15일 해방절 16주년 기념으로 개업하였다. 대표 음식인 냉면뿐만 아니라 고기쟁반국수, 대동강송어국밥, 갈빗국밥, 평양 어죽, 녹두전, 칠면조구이, 온반, 전골 등 독특한 북한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 요리 전문관에서는 피자, 파스타 등과 같은 서양음식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동강수산물식당, 대집단체조 등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북한 체험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숙박시설로는 양각도국제호텔, 고려호텔, 서산호텔, 보통강호텔, 해방산호텔, 평양호텔, 장수산호텔 등이 성업 중에 있다. 양각도국제호텔은 1985년에 문을 연 북한 호텔 중 가장 큰 규모의 최고급 호텔로 엘리베이터에 5층 버튼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총 47층 규모에 1001개의 객실이 운영 중이며 볼링장, 수영장, 당구장, 이발소, 카지노, 노래방, 미용실, 마사지 클럽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한관광산업의 현재와 전망

	
<p>3대헌장기념탑</p>	<p>노동당창건기념비</p>
	
<p>개선문</p>	<p>김일성광장</p>
	
<p>만수대</p>	
	
<p>금수산 기념궁전</p>	<p>옥류관 평양냉면</p>

<그림 2> 평양의 주요 관광매력물

2) 개성

개성은 남한 사람들에게 ‘공단’의 이미지로 친숙하지만, 무엇보다 ‘고려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도시이다. 고려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온 성균관, 고려 말 정몽주의 혈흔이 새겨진 선죽교, 박연폭포 등이 대표적인 매력거리이다. 특히 높이 37m, 너비 1.5m의 박연폭포는 명유 서경덕, 명기 황진이와 더불어 송도삼절로 알려진 스토리로 유명하며 또한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명품 3대 폭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개성한옥보존지구는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마을 형태로 한옥 300여채가 온전하게 온집한 채로 보존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8월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면담을 통해 개성관광에 합의하면서 박연폭포, 관음사, 송양서원, 선죽교, 고려박물관을 당일에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된 개성관광이 2007년~2008년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실시된 6차례의 관광에 하루 평균 370명, 월 평균 1만명(외국인은 2,600명), 총 11만 여명이 참여하였다. 개성관광은 2008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3)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별지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별지대는 2016년 개통된 갈마비행장, 마식령스키장, 석왕사, 금강산, 해금강, 명사십리(북한 천연기념물 193호) 등 문화유산, 된 스포츠,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북한 관광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이다. 특히 금강산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져 새싹과 꽃에 뒤덮이는 봄은 금강, 봉우리와 계곡에 녹음이 깔리는 여름은 봉래, 단풍으로 곱게 물드는 가을은 풍악, 나뭇잎이 지고 암석만이 앙상한 뼈처럼 드러나는 겨울은 개골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다. 금강산에는 수많은 하천들과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폭포들이 많은데 그중 구룡폭포와 비봉폭포, 옥영폭포, 십이폭포 등은 대표적 폭포로 이름나 있다.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별지대에서도 핵심지역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로 1998년 10월 현대와 북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간 합의서 체결이후 시작된 우리나라 국민의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기반시설이 잘 확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시행하기 위해 금강산관광지구법을 2002년에 제정하고 현대에 2052년까지 토지이용권을 부여한 바 있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주요 내용은 ①자연 그대로의 생태관광 원칙, ②생태를 파괴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 금지, ③개발업자의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에 대한 비과세, ④개발업자는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 및 임대 가능, ⑤외화의 반출입 자유, ⑥관광 및 연관된 하부구조 건설부문 투자 장려, ⑦개발자의 지구 관리기관 구성 참여 보장 등이다(이탁연, 2017).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해로관광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중단되기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금강산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 수는 195만 5천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은 연 평균 3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신용성, 2011; 이탁연, 2017; 현대아산 홈페이지, 2018).

북한은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2010년 4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우리나라 정부 자산 5개에 대한 몰수,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단행하였고 민간인력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바 있다. 이후 북한 당국은 2012년 4월 유람선 및 항공기를 이용한 중국관광객의 금강산관광을 시작하였다.



<그림 3> 개성의 관광매력물

북한 국가설계지도국의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에 따르면 원산-금강산 지역을

국제관광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78억 달러(약 8조5000억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2018. 11.7.). 구체적으로 갈마거리에는 3000여 세대 주택, 승마장, 골프장을, 석왕사 지구에는 등산로와 숙박시설을, 통천지구에는 호텔과 관광시설을, 금강산에는 1만석 이상 수용 능력을 갖춘 호텔을, 삼일포지역에는 호텔과 관광시설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뉴시안 2018.6.26.).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수차례 현지를 방문하여 2019년 태양절까지 완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2018년 10월 중순에 오픈한 대북투자 유치 인터넷 사이트인 '조선의 무역(<http://www.kftrade.com.kp>)'를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7개의 호텔(동명호텔, 송도원호텔, 해안호텔, 동정호호텔, 시중호텔, 총석정호텔)과 발전소·철도·식당·편의시설 등 투자 대상 14곳을 상세히 소개하여 해외자본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4) 백두산

백두산의 높이는 2,744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최고봉인 장군봉(將軍峰)을 비롯해 향도봉, 쌍무지개봉, 청석봉, 백운봉, 차일봉 등 해발 2,500미터 이상의 봉우리 16개를 품고 있다. 백두산이라는 명칭은 산머리가 1년 중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다 흰색의 부석(浮石)들이 없어 있어서 '흰 머리 산'이라는 의미로부터 유래되었다. 백두산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산으로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지만 2007년 11월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일행의 평양 방문 당시 남북한 관광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백두산관광 합의'로 백두산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동년 12월 답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이루어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당국은 2015년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삼지연군 백두산 무봉노동자지구 일대(해발 1220m)를 국가사업으로 '산간의 이상도시'로 조성하고 호텔, 경마장, 골프장, 온탕, 유람구역 등을 포함하는 관광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포하였다. 무봉국제관광특구는 두만강의 발원지인 백두산 동쪽의 홍토산과 쌍목봉, 그리고 삼지연군을 연결하는 삼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면적은 총 20km²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지정한 금강산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당국이 지정한 관광특구이며, 북한 당국은 무봉국제관광특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하부구조건설에 투자하거나 첨단기술제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상품을 생산하려는 기업에게는 토지임대료와 기업소득세를 낮추어줄 뿐 아니라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외국 기업가들에게 단독으로도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특혜를 마련한 바 있다.



<그림 4>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별지대 관광매력물



* 출처 : 이데일리(2018.10.17.)

<그림 5>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시찰




<그림 7> 무봉국제관광특구 관광매력물

5) 신의주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접해있는 도시로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도시이며 대북 무역의 중심지이며 중국과 접경지대에서 평양, 개성, 판문점, 금강산, 묘향산 등 북한의 관광명소까지 이동 거리가 가장 짧아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85%가 거쳐 가는 도시이다.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신의주 개방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신의주관광의 거점은 '신의주압록강안관광지[신의주상륙관광원구(朝鮮新義州登岸遊園區)]'이며, 주요 관광지로는 중심광장, 혁명기념관, 민속공원, 압록강공원, 미술관, 김일성부자 동상 등이 알려져 있다. '신의주압록강안관광지'는 2015년 여름 쇼핑과 식사 등 부족한 신의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목적 단둥중국국제여행사가 5,000만 위안(약 89억원)을 투자해 조성하였다. 대지면적 총 13만㎡ 중 1단계로 건립된 8,000㎡ 규모의 건물엔 북한별미식당, 불고기집, 북한농수산물판매장, 국제면세점, 커피숍 등이 입점해 있다.

신의주관광산업은 단둥에서 출발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신의주압록강안관광지'가 개장된 이후 2016년 7월부터 단둥시가 북한 입

국절차를 간소화해 여권과 입국사증(비자) 대신 신분증만 제시하면 통행증을 발급하면서 단둥을 출발하여 '신의주상륙관광원구'와 신의주 시내를 반나절에 돌아보는 관광상품(가격 1인당 350위안)이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2016년 연말까지 약 2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뉴스핌 2017.1.13.). 중국인관광객의 신의주 방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단되었으나, 2018년 들어 재개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시진핑국가주석에게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카드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주말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평균 40인승 버스 10대 이상을 이용하여 오전 8시에 단둥을 출발해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 시내 관광을 하고 오후 5시쯤 단둥으로 돌아오는 당일 관광(경비 1인당 790위안)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압록강 유람선</p>	<p>신의주관광상륙원구</p>
	
<p>김일성 부자 동상</p>	<p>신의주관광상륙원구 공연모습</p>

<그림 8> 신의주 관광매력물

Ⅲ. 북한관광 전망

북한이 가진 많은 특성들 즉, 국제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 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사고방식, 상대적으로 개발의 손길로부터 벗어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 등은 세계 관광객들로 하여금 적어도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비감과 매력을 느껴 한번쯤 방문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은 관광산업을 외화획득의 주 원천으로 활

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남북관광이 중단된 이후 일부 호기심을 가진 외국인과 이념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관광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 돈 되는 것이면 모든 것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 관광을 테마로 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지정과 해외자본유치 노력, 북한 주민들의 여행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 등은 북한 사회에서 접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 당국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이어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중동 지역에 대한 무기와 광물자원 수출금지, 해외 송출 근로자의 입지 축소, 전 세계 130개 지역에서 영업하던 북한 식당들의 폐업 등으로 악화된 달러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대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관광산업은 북한 당국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돌파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먼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나라는 중국이다. 2018년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중국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해 2018년 9월 16일부터 중국인의 북한 단체 여행을 허용하였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북한 당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행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빛나는 조국’이라는 제목의 집단체조(매스게임)와 예술 공연, 평양 국제상품 전람회, 평양 국제영화제, 평양 가을 마라톤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20여개의 북한 전문여행사와 해외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해 중국 이외의 나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고 아직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나 대북투자 유치 인터넷 사이트인 ‘조선의 무역(<http://www.kftrade.com.kp>)’를 통해 외국 투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시하면서 외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8년 들어 세 차례(4월 27일, 5월 26일, 9월 18일~20일)에 거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판문점 선언(①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②문재인 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 회담 정례화; ③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쌍방 당국자 상주; ④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의 ‘평화시대’화; ⑤8·15 이산가족 상봉; ⑥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 연결(2018 남북정상회담 공식 사이트, <http://www.koreasummit.kr/>)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수행함과 동시에 평화 협력과 개발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찾은 유일한 현실적인 돌파구인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와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의 관광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관광산업의 발전 여부는 첫째,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 미국인 대학생 워ம்ப이어(Warmbier) 사망 사건,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버스 전복으로 인한 36명 사망사고 등은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불안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방북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보다 확실한 북측의 약속이행과 규범마련이 필수적이다.

둘째, 3차 북.중 정상회담 결과 북한에 대한 중국인관광객의 단체여행이 허가되어 방북하는 중국인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관광시장을 국경을 두고 접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관광산업의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

북 제재가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중국관광객 유치라는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회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이웃한 중국 관광객들의 북한 방문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 및 교통수단 확충이 절대로 필요하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전담여행사를 적극 활용해 시장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관련 소재(예: 평양냉면, 남북한정상 백두산 동반 등정)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처럼 외국인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셋째, 관광특구 형식의 대단위 관광단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된다. 현재 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별지대,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대단위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자유치를 위해 2018년 10월 대북투자 유치 인터넷 사이트인 '조선의 무역(<http://www.kftrade.com.kp>)'을 오픈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홍보하고 있다. 관건은 얼마나 안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인가에 있다. 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상의 두 지역에서의 외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다른 지역들(예: 묘향산, 개마고원 등)에 대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뒤를 이을 것이며 관광산업 또한 성장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북한 주민의 국내 여행이 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적으로 북한주민의 국내여행은 특정한 목적(예: 출장, 친인척 관혼상제, 정치사상교육의 일환 등)으로 허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북한주민을 경제회생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과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한 주민에 대한 관광정책의 변화는 지속되고 따라서 북한주민에 의한 국내 관광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북한 당국은 관광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여 관광분야 종사자 양성 교육 확대 등 관광분야를 발전시키려는 의식을 더 높일 것이다.

다섯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변화가 가지는 가장 큰 시사점은 남북교류 확대 가능성이다. 이 경우 다른 분야보다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교류 확대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아시아투데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2.4%가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하루 빨리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여(아시아투데이, 2018. 11. 8.) 관광분야에서의 남북교류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수 관광 목적의 남북관광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국제 제재 완화와 함께 지난 2013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조항을 포함하여 발표한 5·24 조치의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5·24조치 해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남북관광교류 역시 다소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관광산업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발전 수단으로 선택하고 대규모관광단지개발,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중국도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의 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암시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을 허용하였다. 북한관광에서 남한의 역할이 크고 이러한 역할은 훗날 통일한국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한규. (2016). “북한외래관광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근수. (2018). “북한관광의 현황과 남북한 문화관광협력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94, 231-249.
- (2015). “북한관광의 현황과 전망.” 『배재대학교 북한관광연구소 학술심포지움』.
- 박정진. (2018). “국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관광객 유치 해외 공급망과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중심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2(6), 77-90.
- 신용석. (2005). “남북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2011).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대비한 제도적 개선방향: 관광객 신변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4), 75-94.
- (2012). “남북관광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용규. (2016). “북한 김정은 체제의 관광의 정치적 이용에 따른 북한관광의 발전방향.” 『호텔리조트연구』, 15(3), 201-227.
- 이탁연. (2017). “북한관광 재개방안 연구.” 『북한관광 재개방안 토론회』, (주)공감만세, 4-20.
- 임을출·장동석·고계성. (2017). 『북한관광의 이해』. 서울: 대왕사.
- 조선향토대백과. (2008). (사)평화문제연구소.
- 천경효. (2018). “남북관광: 이해와 공감으로 가는 길.” 『웹진 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2001).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및 관광특구 확대 가능성』.
- Buda, D. M., & Shim, D. (2017). “‘Real’ and ‘normal’ North Korea: On the politics of shinning light on the darkness. Reply to: ‘Shinning light on the darkness. Placing tourists with in North Korea.’” 『Current Issues in Tourism』, 1-3 (ahead-of-print).
- Cho, M. (2007). “A re-examination of tourism and peace: The case of Mt. Gungang tourism developo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ourism Management』, 28(2), 556-569.
- Connell, J. (2017). “Shining sight on the darkness: Placing tourist within North Korean tourism. Comment on: Desiring the dark: ‘A taste fro the unusual’ in North Korean tourism?” 『Current Issues in Tourism』, 20(4), 356-362.
- Hall, D. R. (1990). “Stalinism and tourism: A study of Albania and North Korea.”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1), 36-54.
- Kim, Y. K. & Crompton, J. L. (1990). “Role of tourism in unifying the two Korea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3), 353-366.
- Kim, S. S. & Prideaux, B. (2006).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 domestic public opinion, tourism development in North Korea and a role for tourism in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urism Management』, 27(1), 124-137.

- Lee, C. K., Bendle, L. J., Yoon, Y. S. & Kim, M. J. (2012). "Thana tourism or peace tourism: Perceived value at a North Korean resort from an indigenou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4(1), 71-90.
- Li, F. & Ryan, C. (2018). "Souvenir shopping experiences: A case study of Chinese tourists in North Korea." 『Tourism Management』, 64, 142-153.
- (2015). "Chinese tourists'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visiting Nor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0(12), 1313-1331.
- Reily, J. (2014). "Cjina's market influence in North Korea." 『Asian Survey』, 54(5), 894-917.
- Wassler, P. & Schuckert, M. (2017). "The lived travel experience to North Korea." 『Tourism Management』, 63, 123-134.

<https://blog.naver.com/newsian0/221306972968>(뉴스안 2018.6.26)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28581&memberNo=11166748&vType=VERTICAL>(중앙시사매거진, 2018.11.8.)

<https://news.joins.com/article/23052562>(중앙일보 2018.1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101762>(중앙일보, 2018. 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71626001&code=910303(경향신문, 2018.11.7.)

<https://news.kotra.or.kr>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19>(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107010004197>(아시아투데이, 2018. 11. 8.)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2806619179072&mediaCodeNo=257>(이데일리, 2018.10.17.)

<http://www.hdasan.com/>(현대아산 홈페이지. 2018.)

<http://www.koreasummit.kr>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113000253>(뉴스핌 2017.1.13.)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